

봄철 '포트홀' 120으로 신고하세요

〈균열이 발생한 도로〉

광주시·5개 구청 보수반 편성 해빙기 도로 파손 주의 당부

광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3월 한 달간 파손된 도로를 긴급보수하고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4월까지 덧씌우기 작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3월 말까지 해빙기 포트홀(파손된 도로) 긴급보수 기간으로 정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와 5개 자치구 관계자 등 62명이 참여하는 14개의 긴급

보수반을 편성했다.

포트홀은 지난 겨울 잦은 강설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눈, 비의 동결·융해가 반복되면서 균열이 발생한 도로를 지칭한다.

긴급 보수반은 매일 도로를 순찰하면서 확인한 포트홀과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복구활동을 벌인다.

앞서 광주시 등은 1월부터 현재까지 6673포대의 아스콘을 활용해 5247곳의 포트홀을 긴급 복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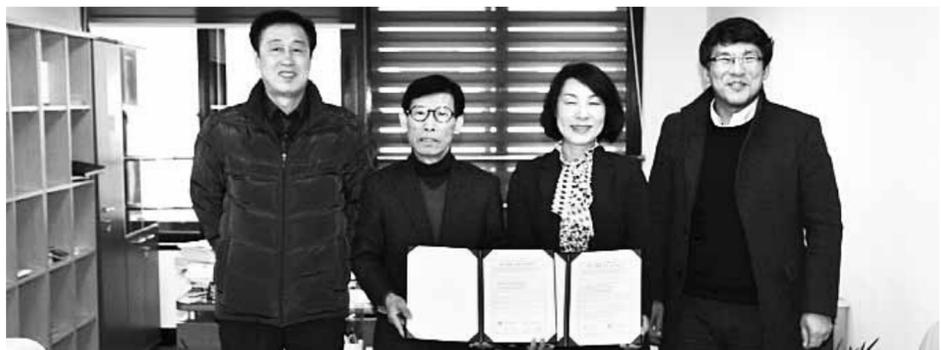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덧씌우기)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재포장 사업은 올해 책정된 도로정비 사업비 81억

원 가운데 4월까지 30억원을 우선 투입해 동구 방실로 등 33곳, 15km 구간의 도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어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상반기에 집중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남균 시 도로과장은 "아스콘 도로는 6년마다 재포장을 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대상 면적의 20% 이하만 정비되면서, 도로 파손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트홀을 발견하면 전화(120) 또는 SNS(밴드 - 빛고을길지킴이, 생활불편 신고 웹)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나의갑·왼쪽 두번째)과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5·18기록관에서 '학생들의 5·18 바로 알기 교육 및 체험 학습 업무 지원 협약'을 했다. <5·18기록관 제공>

청소년들, 5·18기록관서 광주정신 배운다

자유학기제 활용 등 협약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나의갑)과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는 최근 5·18기록관에서 '학생들의 5·18 바로 알기 교육 및 체험학습 업무 지원 협약'을 했다.

협약은 초·중·고교생이 5·18기록관 관람을 통해 5·18 광주정신과 민주·인권·평

화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5·18기록관은 5·18기록물과 사진, 영상, 희귀 소장품을 등을 학생들에게 상세한 해설과 함께 보여주는 등 5월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양측자 시교육청 과장은 "5·18 광주정

신과 민주·인권·평화정신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기록관과 협력하겠다"며 "내실 있는 5·18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록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소장·관리하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과 오는 4월 공동협약을 체결, 세계기록유산의 공동 활용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해교육 교원 51명 23일까지 연수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진행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일 진흥원 4층 대강의실에서 '2018년 초등 및 중학교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 개강식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선발된 51명의 연수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는 3월 23일까지 총 5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

15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후 문해교육 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성인문해교육이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닌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자해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해교육 교원 연수의 주요 교육 과정은 문해교육개론을 비롯해 교수법, 문해교육교사의 가치와 사명,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등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과

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문해교육 교원 연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해왔으나 시민의 참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2016년 동안 초등 문해교육 교원 59명, 중학 문해교육 교원 17명을 양성한 바 있다. 진흥원에서 올해 초등 및 중학교정 문해교육 교원 연수는 물론, 문해교육 교원 보수교육 및 파견사업, 제3회 문해의 달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혁신도시 TF팀' 분과위원 다양화

기관 관계자 추가 참여

광주시는 광주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간 연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혁신도시 연구기획 TF팀'을 지원할 분과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연구기획 TF팀'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문화, 에너지, ICT융합, 농생명 분야를 담당하는 4개 분과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 혁신도시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정주여건 개선이나 시정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에 기여하는 등 일부 주관부서의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및 분과위원들의 관심 부족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정제화하고, 위원도 기존 교수, 연구원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추가로 참여시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

과위원회별 회의도 격월 의무적으로 열고, 이를 점검하는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한다.

또 빛가람혁신도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등 산·학·연·관이 연계해 지역의 동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市,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2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공모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실업률 상승,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한계 등 청년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단,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최소증가인원 2명)이며 연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기업의 청년고용 증가, 고용 증가, 고용 유지율 등을 심사해 2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20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6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 후 지금까지

4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숙사, 직원휴게실, 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스런 반응을 얻었다.

시는 이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토대로 지역 기업들의 청년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고용보급 가입자 명부, 재무제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4월2일부터 30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 One-Stop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 One-Stop지원센터(062-613-5995)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분쟁중재원 일일상담 26일 시청 1층 민원실

광주시는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오는 26일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일일상담소를 운영한다.

일일상담소 운영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재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상담자 명단이 확정되면 개별 안내문을 받아 일일상담실을 찾으시면 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 일일상담 예약 현황 등을 참고해 연 5회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학습동아리' 16일까지 공모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이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복지현장의 유사한 관심이 있는 종사자들이 소통과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이나 토론, 소진예방 등(취미활동은 제외) 다양한 모임을 결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아리 구성조건은 광주시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중 ▲회원 8인 이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 ▲최소 3개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참여 권장 ▲동일기관 종사자 50% 이내 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에서 다운받아 이메일(gjwf@daum.net)로 제출하면 되고, 전문가 심사(신청심의위원회)를 통



지난해 광주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한 동아리와 재단 관계자가 기념촬영한 모습.

해 이달 23일 10개 학습동아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 리더들은 28일 리더워크숍을 통해 리더교육, 활동 및 예산운영 수칙 등을 안내받고, 4월부터 6개월 동안 100~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www.gjwf.kr)에서 찾거나 복지사업팀(603-8342)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사불대폭 조정가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